

IC, 2013년 시장 3000억달러 돌파

IC Insights, 성장주기 갈수록 단축 ... 금속산화물 반도체 20% 성장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의 글로벌 시장규모가 2013년 3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IC Insights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IC 시장은 1980년 100억달러, 1995년 1000억달러, 2005년 20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3년 최초로 3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IC는 박막트랜지스터·저항기·콘덴서 등의 부품을 세라믹기판 위에 배열시켜 배선까지 한 것으로 자체로 하나의 집약된 반도체부품이다.

회로 집적도에 따라 소규모 집적회로(SSI), 중규모 집적회로(MSI), 대규모 집적회로(LSI),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 극초 집적회로(ULSI)로 구분된다.

IC Insights는 사상 최고 성장세를 나타냈던 2010년과 달리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2011년 세계 반도체산업 성장률을 10%에서 5%로, IC 시장은 10%에서 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IC 시장은 1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10배 커지는 데 15년 걸렸고, 다시 2배인 2000억달러로 성장하는데 10년 소요됐지만, 3000억달러 고지에는 8년이 걸리는 등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IC제품 출하량은 2011년 처음으로 2000억개를 넘어서고 아날로그 장치도 1000억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IC 항목 중 금속산화물반도체(MOS)는 2015년까지 연평균 12%의 높은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낸드플래시도 태블릿PC, 스마트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20% 수준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5>